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Market Trend of PET & Nylon Film

원자재 가격상승과 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내 폴리에스터 업계는 중국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광학 및 특수용도 제품 비중을 높여나가는 등의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유가 인상과 단가 하락 압력, 경쟁 격화 등으로 포장재 등에 쓰이는 범용 PET 필름은 물론 확산필름 등 일반 LCD용 광학필름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은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올해 폴리에스터(PET) 필름 업계의 화두는 광학 및 태양전지에의 PET 필름의 적용 및 응용이었다. SKC가 먼저 광학필름의 원자재로 쓰이는 고순도 후막 베이스필름이나 태양전지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용 필름 분야로 진출을 계획중이며 코오롱도 후막 필름 라인을 1기 증설하고 기존 포장재 라인도 전환기로 했다. 또한 도레이새한도 후막 필름을 주력제품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본 고에서는 PET 필름 및 나일론 필름 수급동향을 살펴보고, 업체별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1. SKC(주)

1977년 세계에서 4번째로 폴리에스터 필름을 개발한 SKC(주)는 1978년 수원공장을 준공하고 1999년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설립, 현재 PE 보호 Sheet와 PEN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SKC(주)에서 판매하는 PET 필름의 약 74,000톤 중, 포장용 제품이 약 22,000톤 가량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 중 내수에 약 10,0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열수축 필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은 주류 포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장용은 총 판매량의 40%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던 PVC 수축필름 대체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재활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PET 열수축 필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포장 제품의 경우, 대체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점차 판매비율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기준 약 35% 가량이 판매됐다.

이 외에 사탕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Twist 필름이 약 8%. 그 밖에 투기, 투습성이 좋은 PVDC 필름(치즈 포장 등 사용)에 약 2%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PET 필름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Flat

Panel Display가 PET 필름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래 성장을 둔화나 경쟁 격화를 대비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등 차세대 용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광학, 산업용 PET 필름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SKC의 경우 광학필름의 원자재로 쓰이는 고순도 후막 베이스필름이나 태양전지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용 필름 분야에서 동력을 찾고 있다. 각종 태양전지용 PET 필름을 생산 중인 SKC는 최근엔 태양전지 셀 전면을 봉지하는 EVA 필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PET 필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나, 포장용 시장의 경우 저가 수입산 및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연포장 제품의 경우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명증착, Wash-off, MD shrinkable 필름 등 기능성 제품의 시장 성장은 예상된다.

향후 Flat Panel Display의 경우 올해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SKC는 광학용 PET 필름의 품질 안정화 및 판매량 증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차세대 유망 제품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PET 필름의 개발 및 양산을 통해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포장용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연포장 제품의 판매를 최소화 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판매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SKC(주) 관계자는 “경제 성장 침체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PET 필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품질에 대한 고객의 기준이 날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

로 품질 개선을 통한 고객 불만을 제로화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 (주)코오롱

(주)코오롱은 1985년 구미공장에 PET 필름 베이스라인을 준공하고 1990년 김천공장에 나일론 필름 공장을 준공했다.

현재 PET 필름 8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코오롱은 지난해 65,000톤을 수출하고 31,000톤을 내수로 공급했으며 포장용으로 32%를 기타산업용 42%, 광학용 26% 가량이 소비되었다.

포장용 PET 필름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수입산 물량이 최근 4년간 급증했으며 현재는 광학용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코오롱은 광학용 신규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며 올해는 수입산 물량의 감소로 6% 이상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가동될 (주)코오롱의 광학용 신규라인의 경우 김천 공장에 증설될 예정이며 연 1만 5000톤에서 3만톤의 생산규모가 확대, 국내외 거래선 다변화 및 대만·유럽 등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주)코오롱에 따르면 후막(厚膜) 베이스필름은 LCD·터치스크린·PDP·태양전지용 백시트 등에 사용되는 0.25mm~0.3mm의 두꺼운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오롱의 PET 필름은 자체 개발한 바인더레진이 얇게 코팅돼 있어 필름 마찰력을 감소시켜 굽힘 현상을 방지, 공정상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 집

[표 1] PET 필름 수급 동향

(단위 : MT/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3	74,000	38,000	36,000
도레이새한(주)	9	103,000	35,000	62,000
(주)코오롱	8	96,000	65,000	31,000
(주)화승인더스트리	1	15,000	6,500	8,500
(주)효성	1	14,400	4,800	9,600

※ SKC(주) 데이터는 수원공장 생산량 기준이며 미국 공장 3개 라인, 약 40,000톤/년 캡파

[표 2] 나일론 필름 수급 동향

(단위 : MT/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주)코오롱	2	7,200	4,700	2,500
(주)효성	2	7,800	2,400	3,600

이를 통해 올해 매출 800억원에서 오는 2010년에는 1천600억원의 광학용 베이스필름 부문의 매출을 달성, 수익성 증대와 더불어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광학용 후막 베이스필름 라인의 완공과 기존 포장용 필름 라인의 추가 개조를 통해, 2010년까지 필름사업 구조를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주)코오롱은 현재 2개의 나일론 필름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7,2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해 수출로 4,700톤을 내수로 2,500톤을 공급했다.

현재 나일론 필름 시장은 수입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 밸런스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주)코오롱이 전자재료를 포함한 필름 부문의 이익 확대 등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로 함에 따라 기존 필름 및 고분자 기술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소재 산업과 태양광에너지 사업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3. 도레이새한(주)

세계적인 첨단소재기업인 일본 도레이그룹의 자회사로 다양한 산업소재를 만들고 있는 (주)도레이새한은 1999년 10월 한·일 합작 기업으로 출범, 폴리에스터 베이스 필름, 가공필름, 전자정보소재, 생분해성 수지, 차별화 원사, 첨단 부직포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미에 3개의 공장이 있다.

도레이새한의 PET 필름은 기계적 물성과 치수안정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자기기록재용, 포장용, 산업용, 전사용, 전자전기용, 그래픽용,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총 9개의 폴리에스터 필름 라인에 총 103,000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레이새한은 이 가운데 35,000톤을 수출하고 62,000톤을 내수로 공급했다.

도레이새한이 생산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필름은 포장용으로 10%, 자기용 13%, 그래픽용 22%, 전사용 7%, 기타공업용 48% 가량을 생산, 사용되고 있다.

올해 유가 상승에 따라 폴리에스터 필름의 수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도레이새한은 일반 포장용 등 저 수익군 제품에서 광학용 등 신제품시장으로 제품군을 확대, 경북 구미의 투명광학용 필름 라인을 연 1만 3,000톤 규모로 증설하면서 후막 필름을 주력제품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4. (주)화승인더스트리

1997년 폴리에스터 필름 사업을 개시한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연간 15,000톤의 PET 필름 생산이 가능한 업체이다. 지난 해에는 6,500톤을 수출하고 8,800톤을 내수 시장에 공급, 용도별로는 공급했다. 용도별로는 포장용 36%, 라미넥스 21%, 절연용 11%, 레토르트 4%, 기타 28% 가량으로 소비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포장용 PET 필름 매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원재료가 폭등에 따른 PET 필름 업계의 손익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생산성 개선 및 원가절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덤핑 판정 이후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PET 반덤핑 조치

로 저가 수입필름의 유입이 차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주)효성

(주)효성은 스넵, 용기뚜껑, 레토르트 파우치 등 포장용과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 산업용 및 전사 증착용 등 범용 필름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1996년 대전공장에 나일론 필름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2004년에 구미에 나일론 필름공장을 증설, 이듬해 중국 가흥에 공장을 증설했다. 또한 폴리에스터(PET) 필름의 경우 1997년 구미 1공장에 준공했다. 효성의 폴리에스터 필름은 자체에서 공급되는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 기존의 범용 필름과는 차별화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기계적 강도가 크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효성의 PET 필름은 각종 포장재 및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합하다.

폴리에스터 필름 1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효성은 총 생산능력 14,400톤 가운데, 4,800톤을 수출로 9,600톤을 내수로 공급하고 있다. 용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포장용으로 70%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가량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효성의 나일론 필름은 세계 최초로 원통형 생산 방식(Triple Bubble System)을 채택, 이축연신 필름 생산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왔다.

나일론 필름의 경우, 현재 2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생산능력 7,800톤을 지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출 2,400톤, 내수로 3,600톤을 공급했다.

앞으로도 필름 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투자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K]